

만남

2019년 10월
통권 177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또 다른 사랑, 공감-----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시다---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교회 안에 선교의 ‘봄’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시어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봄’을 맞이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다른 사랑, 공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다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동지로 만들기 위해 정말 필요한 노력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상대방이 안고 살아가는 상처와 고통, 슬픔과 낙약함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 사람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높은 시련의 파도와 맞서느라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바로 그 옆에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희희낙락하며 웃고 있다면, 그것은 동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매너가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시대, 슬픈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공감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공감이란 한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공감이란 슬퍼하는 그와 눈을 마주치는 일입니다. 공감이란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감이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공감이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감의 명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철저히해도 인간과 공감하셨습니다.

광대무변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세상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느님께서 한 인간의 죽음과 눈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친구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작은 고통에 공감하시며 그것을 못견뎌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 작은 슬픔과 하소연 앞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안쓰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연민과 측은지심의 하느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큰 슬픔 앞에 같이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과 공감하며 살며시 손을 내민 적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시다(루카 17,11-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장 “주께 감사드리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언제나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 ▶ 주님,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7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11 16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간절한 청이 이루어진 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주님께 감사드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드리는 신앙의 삶은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요.

감사할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으면서 체험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잃으면서 더 크게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를 챙기던 이가 몇 끼만 식사를 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어져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반복될수록 일상이 되어 당연한 것이 되어 지고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함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열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감사드리러 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드리지 않은 아홉 중의 하나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 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장 “주께 감사드리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소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배분 2

☞ 서기의 역할

- ① 선정된 서기는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를 준비하고 모임 진행 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를 모임 전에 미리 챙기고 지난 모임 때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③ 모임 전 반장과 진행자에게 지난 모임에 작성한 회의록을 1부씩 복사해 주어 미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열람을 원할 경우 숫자만큼 복사해 나누어 줍니다.
- ④ 모임 당시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⑤ 나눔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적인 나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기록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모임이 끝나면 회의록을 반장에게 제출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⑦ 회의록이 소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타 모임 신자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 등)에 의해 아무렇게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복음나누기 진행자의 역할

- ①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를 모임 전에 충분히 숙지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의 진행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 ③ 모임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멘트를 읽어가며 진행합니다.
- ④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도, 성경낭독, 묵상나누기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⑤ 특히, 6단계에서 지난 주 활동 나눔 및 활동 계획 수립, 그리고 신앙상식 공부 시, 각 담당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예를 들어 선교, 봉사활동 담당자의 활동 나눔 안내 등)

28. 우상숭배의 뿌리

성경, 특히 구약성경의 역사는 죽음의 우상과 생명의 하느님 사이의 끝없는 싸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하나는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상숭배가 단순히 마술적이거나 미신적인 종교심성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상숭배의 뿌리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금송아지와 바알 신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인간의 깊은 욕망은 금송아지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원하며 금붙이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있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인간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며, 새로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욕망과 사회 구조의 순환하는 시스템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면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역시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시듯,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상은 돈입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숭배라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물신숭배는 비인간적인 경제적 독재의 구조와 풍요로운 소비에 대한 욕망 사이의 순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55항 참조). 이러한 비인간적 경제 모델은 여러 가지 얼굴과 이름을 가지는데, 그것들은 다름 아닌 ‘효율’ ‘경쟁력’ ‘경제성장’ 등으로 표현되며, “기업이 잘 돼야 서민이 잘 된다.”는 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적 현실과 사회적 맥락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따름입니다.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곧바로 서민들의 복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예수님이 빵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빵이 많다고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니요 인간답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물신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물신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29. 사회교리와 선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매달 200만 원씩을 저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 걸리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2억 4000만 원입니다. 수도권에서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달 200만 원씩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는 젊은이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한들 매달 200만 원씩을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아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자녀의 집 마련과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20, 30대의 평균 임금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 따위는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으니 그저 즐기자 하고, 그런 젊은이들의 돈을 노린 자본주의 세력은 그들의 구매욕과 쾌락에 대한 욕구를 공략합니다. 더욱 자극적이고, 쾌락주의 일변도로 흐르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해 갑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 한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젊은이들, 그나마 있는 것마저 나누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소비하게 만드는 문화, 가계부채와 소통의 단절로 다투는 가정이 늘어갑니다. 정작 나누어야 할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 어려운 서민의 살을 도려내어 젊은이들을 살리겠다는 허울뿐인 ‘임금피크제’로 인해 노년의 삶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자리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길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구원입니다. 사회교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교리를 외면한 선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복음화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제 관계, 평화, 정의, 개발 등에 관한 명시적인 메시지, 특히 오늘날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해방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 제29항)

30.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지만 다시 잊어버리고 같은 선택을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지도층은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상황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쟁을 강화하고, 사람을 큰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보다 효율적인 도구로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쳇바퀴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행동 없이 그저 비판만 하고, 속상해만 한다면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획일화된 사회, 경쟁을 강요하고 효율만을 좇느라 인간을 중심에 놓지 않는 사회가 틀렸다면, 스스로가 큰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에는 다수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박해가 따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보다 공동선을, 내 욕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없다면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삶든 우리 모두는 이미 쳇바퀴 위에 서있고, 그 쳇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내가 이 쳇바퀴를 굴려야 하는가라고 생각만 할뿐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쳇바퀴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것에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가짜나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과 정직을 찾고 있다. 이 시대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다.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말로 알리고 있는가? 생활의 증거는 선교의 참된 효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쳇바퀴를 돌릴 것인지, 나의 삶, 우리의 세상을 진정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용혜원 목사님)

까닭 없이 비난을 받을 때,
이유 없이 고통을 받을 때,
작은 실수로 오해를 받을 때,
심한 상처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도함으로써 용서와 이해의 문을 열게 하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에서 시작되었으니
죄를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게 하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듯이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분노로 인한 모든 얽매임을 사랑으로 풀게 하소서.

주님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이오니
과거의 것들을 용서함으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나도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서
수없는 용서 받음과 수없는 용서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http://blog.naver.com/chanbum112>



질문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화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해서 아주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커녕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기 일쑤입니다. 전에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더니, 그분은 ‘나를 싫어하느냐?’ ‘평소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난리를 쳐서 대화 분위기가 몹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심리치료에선 사람의 성격을 ‘성격장애’와 ‘신경증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격장애란 말 그대로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성격장애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가진 생각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폐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병적인 자기망상 안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성격장애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병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심한 집착을 가져서 즉,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아상이 자랑스럽거나(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반대로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상관없이 ‘자아’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온종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하는 거울 공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심리치료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격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일회

용 변기통쯤으로 여기기에 대화중에 상대방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마디로 ‘진상’이지요.

어느 본당 신부가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려니 십자가의 주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부는 “주님, 어떤 일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방금 기도하고 나간 놈 때문에 그런다” 하셨습니다. 신부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인데, 그놈은 날 보고 샷대질을 하면서 ‘주님이라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항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 말할라 치면 똥 싸고 도망치는 강아지처럼 나가버려서 그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자는 주님께서도 어찌지 못하신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 나이 돼봐야 알아.’ 하며 젊은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충고하면서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노인 진상’ 혹은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어떤 노인분이 젊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준다고 하시더랍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나타난 성격장애자들도 문제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라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요.



★ 묵주기도의 성월을 맞으며(김형민 안토니오 신부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에페 5,6-14참조). 이 빛의 자녀들은 악마의 간계에 맞서 싸우는 영적 투쟁을 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칼 곧 하느님의 말씀을 쥐라고 말씀하십니다(에페 6,12-17). 이렇게 영적 투쟁의 준비를 마친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는 자들입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쳐지는 기도입니다. 이는 그 단순한 구조 안에 복음의 요약과 같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라고 가르치시며, 묵주기도를 통해 구세주의 어머니 손에서 받듯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단언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관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시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일생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과 함께 하시며 그것을 묵상하셨습니다(루카 2,19;2,51 참조).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아드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여 주시며, 그 신비의 관상으로 그 모든 구원의 힘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어머니의 기억과 그 눈길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더 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인 묵주기도를 습관처럼 성의 없이 바치거나 많은 양을 바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다면, 이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마태 6,7 참조).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운율과 묵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관상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사실 기억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게 합니다. 전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그 구원이 ‘오늘’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세주의 삶의 기억하고 그 신비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묵주기도가 “끊임없이” 바치는 수많은 기도의 정점에 자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다름이 아니라 성모님의 모범입니다. 묵주기도 한단 한단을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것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신비를 깨달고 복음을 배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 배움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의 나그넷길”을 걸어가신 성모님과 함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배움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것을 향합니다. 마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닮아감과 같이, 묵주기도는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분과의 우정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묵주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자모이신 동정 마리아께 의탁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고 기르신 것처럼, 자녀들인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많은 분심을 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된 것이 되고 우리 안에 하느님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임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묵주기도의 성월에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침으로써 성모님께서 전구해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레사	최 영 숙	18일	루카	현 안 이 태 동 빈
4일	프란치스코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로메	정 명 옥
	프란츠	김 기 현			
	프란치스카	양 현 호 김 인 순 이 정 은	23일	이나시오	윤 용 기
	프랑크	김 기 년			
7일	로사리아	송 화 현	28일	시몬	김 최 최 동 화 순 수 영 남
16일	마르가리타	강 순 행 이 가 나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소화데레사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레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카스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윤주해(B) 안수경(O)			
	프랑크	정유진(H)	30일	루실라	권명옥(O)
7일	로사리아	조현영(B)			



❖ 10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6일	411	513	175	271
13일	329	512	171	13
20일	63	221	163	450
27일	찬 양 미 사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구역
13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2구역
20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3구역
27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4구역

❖ 시편 23편 충청도 버전

주님은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맥이시는 분이시니/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유/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어푸러지게 하시며/니나노하기 딱 좋은 둠벙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유./지 영혼을 살려주시구유./그분의 함짜를 위하여 의의 질루 인도하시는 것이지유./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깡감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땡겨두/해꼬지를 무서얌는 것은 주님께서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유./하마 주님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유./주님께서 지 웬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구/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 둘 바를 모르겠네유./시방두지 잔이 넘치네유./지 평생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루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지가 주님의 집에 아예 폭 놀러 살 것시유.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25일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주일헌금	231,36	206,07	225,80	274,77	275,50
헌납금	300	70	30	60	90
구작입금	8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590.00 * 헌납금 합계 1,140.00				
	배구대회 찬조금 : 3,510.00 + 27,28(빈 병 환급) = 3,537.28 Euro				
	Nacht der Kirche 비빔밥 판매 수입 : 174,28 Euro				

❖ 자진헌납금 ❖

2019년 8월 20일 - 2019년 9월 22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헌금납부 :

홍종각, 최현봉, 최순남, 최장용, 김계희 Tunas, 황영선,
 한선지,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현영애, 이정수,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Raniztsch, 이현묵, 심동근,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이(박)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김경렬, 정순문,

◆ 구작입금 :

허채열, 이경규, 최화영, 이영원, 육종인, 강일남, 홍경영,
 김춘옥 Zerbock, 이중지 Rother,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김치수, 김대현, 김형웅, 김동수, 김유석,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이영희 Eggerstedt, 백정선, 남궁춘배, 허두옥, 허길조,
 권지연 Rabe, 박준병,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매 주일 14시 20분부터 꾸리아 주관으로 목주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은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 10월 1일 화요일 18시 15분에는 주교좌성당에서 스테파노 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가 있습니다. 만남성당에서는 미사가 없으며 이 미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3. 10월 6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있습니다.
4. 10월 9일 수요일 오전미사 후에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고, 10월 11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 10월 13일 주일미사 후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 10월 25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10월 14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독일·화란 사목자 모임이 저희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시는 신부님들을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6. 10월 24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7. 한국에서는 10월 20일 일요일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지만 독일에서는 10월 27일 일요일에 Welt Missionssonntag 미사를 봉헌합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날은 넷째 주일이므로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또한 이 날은 Sommerzeit가 해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8. 11월 2일 토요일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11시에 Ohlsdorf 묘지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주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9월 미사는 신부님의 부재로 미사가 없었습니다.
3. 10월 미사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9월 공동체 미사는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Langenhagen에 있는 Liebfrauen 성당에서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그릴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10월 공동체 미사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St. Antonius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9월 14일(토)에 한가위 합동위령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10월 미사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0월(묵주기도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국군의 날	믿음의 샘 뿌리아	
2	수	수호천사 기념일, 노인의 날		
3	목	개천절		
4	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사목월례회	
7	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화	한로		
9	수	한글날	요셉 마리아회	
10	목			
11	금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오스나브뤼크
13	일	연중 제28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독일 화란 사목자 회의(함부르크)
15	화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16	수			
17	목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18	금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연령회 월례회	
25	금		4구역 소공동체	
26	토			
27	일	연중 제30주일(Weltmissionstag)	2차 헌금, 찬양미사	Sommerzeit 해제
28	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29	화			
30	수			
31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